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 SIN: 신조선가 지수 127p, 중고선가 지수 88p

Clarksons에 따르면, 신조선가 지수는 127p(-1p, WoW), 중고선가 지수는 88p(-1p, WoW)로 전 주 대비 하락함. 현대미포조선이 50,000DWT급 MR탱커 2+1척을 수주했고 2021년 하반기 인도 예정으로 보도됨. 대우조선해양이 360,000CBM급 LNG Barge 2+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2년과 2023년 예정으로 보도됨. (Clarksons)

## Chinese iron ore demand helps capesize rates complete a full week of growth

브라질 철광석 수출물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,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로 인해 Capesize벌크선 운임은 일주일 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. Baltic Capesize 지수는 지난 월요일 이후 +88% 오른 1,523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. 주요 5개 노선의 운임은 지난 월요일 이후 +60% 상승했다고 보도됨. (TradeWinds)

## US rig count decline seen slowing

에너지원 가격의 안정세로 인해 미국 Rig(시추장비) 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됨. 3월 이후 두자릿 수 감소세를 기록해왔지만 지난 주 5기 감소에 그쳤다고 보도됨. 현재 미국 내 Oil rig 수는 199개이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Oil rig 수는 788기라고 보도됨. Gas rig 수는 지난 주 대비 2기 증가한 78기라고 보도됨. (Upstream)

## QP, 곧 LNG선 용선 협상 개시

Qatar Petroleum(QP)은 향후 수 주 내에 자사가 필요로 하는 LNG선을 발주해 줄 선주 선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됨. 외신에 따르면, 카타르가 발주할 LNG선의 용선 제공 업체 선정 입찰에 무려 30여개의 선주들이 참여하여 경쟁할 전망이라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VLGC 시장 휘청

미국의 LPG 공급량 감소로 인해 VLGC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고 보도됨. 지난 5월 첫 주 VLGC 운임은 하루 40,000달러였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도됨. 앞으로 수 주 내로 운임이 하루 10,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 조선업 '특별고용지원업종' 연말까지 연장...대형 3사는 제외

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보도됨. 최근 조선업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(COVID-19) 확산 등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. 한국조선해양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됨. (머니투데이)